

제목

## 중국, 2/4분기 경제성장률 4.7%

1

발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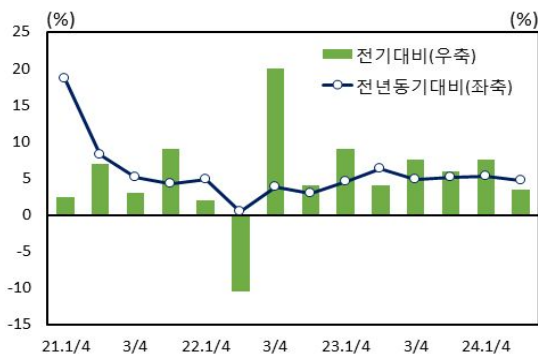
- 중국의 2024년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4.7%로 전분기(5.3%)에 비해 성장세가 상당폭 둔화(7.15일, 국가통계국)
  - 전기대비 성장률(계절조정계열)은 0.7% [1/4분기: 1.5%]
  - 명목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4.1% [금액으로는 32조 537위안]
  - 한편 올해 상반기 실질GDP 성장률은 5.0%를 기록
- 산업별로는 1차산업(24.1/4 3.3% → 2/4 3.6%)은 성장세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2차산업(6.0% → 5.6%)과 3차산업(5.0% → 4.2%)은 성장세가 둔화

### GDP 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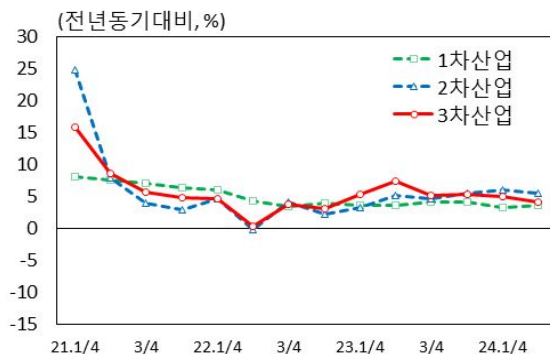
	2022	2023	2022		2023				2024	
			3/4	4/4	1/4	2/4	3/4	4/4	1/4	2/4
실질GDP (전기대비)	3.0	5.2	3.9	2.9	4.5	6.3	4.9	5.2	5.3	4.7
	-	-	(4.0)	(0.8)	(1.8)	(0.8)	(1.5)	(1.2)	(1.5)	(0.7)
1차산업	4.2	4.1	3.4	4.0	3.7	3.7	4.2	4.2	3.3	3.6
2차산업	2.6	4.7	4.1	2.3	3.3	5.2	4.6	5.5	6.0	5.6
3차산업	3.0	5.8	3.9	3.1	5.4	7.4	5.2	5.3	5.0	4.2
명목GDP	4.8	4.6	5.7	3.5	5.5	5.3	4.0	3.7	4.0	4.1

### GDP 성장률



자료 : 국가통계국, WIND

### 산업별 성장률



자료 : 국가통계국, WIND

작성자 : 북경사무소 신동주 과장

□ 6월 주요 경제지표 동향을 보면 **6월 들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

○ **공업생산**(5월 5.6% → 6월 5.3%)은 광업(3.6% → 4.4%)과 전기가스수도업(4.3% → 4.8%)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주요 하위산업인 제조업(6.0% → 5.5%)의 증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둔화**

— **서비스업 생산**(4.8% → 4.7%)은 전월과 대체로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

○ **소매판매**<sup>\*</sup>(3.7% → 2.0%)의 경우, 외식업판매(5.0% → 5.4%)가 전월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졌으나, 상품판매(3.6% → 1.5%)의 증가율이 상당폭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둔화**

\* 전월대비 증가율 : (24.3월) 0.2% → (4월) 0.0% → (5월) 0.2% → (6월) -0.1%

—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품(9.3% → 10.8%), 의약품(4.3% → 4.5%)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전월보다 증가율이 낮아짐<sup>\*</sup>

\* 주요 품목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5월 → 6월) :

(가구) 4.8% → 1.1%, (화장품) 18.7% → -14.6%, (통신기기) 16.6% → 2.9%, (자동차) -4.4% → -6.2%, (가전제품) 12.9% → -7.6%, (의류) 4.4% → -1.9%

○ **고정투자**(누계기준, 4.0% → 3.9%)는 부동산개발투자(-10.1% → -10.1%)의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제조업투자(9.6% → 9.5%)와 SOC투자(5.7% → 5.4%)도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

### 2024.6월 주요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1.6월	22.6월	23.6월	24.4월	5월	6월
<b>공업 생산</b>	<b>8.3</b>	<b>3.9</b>	<b>4.4</b>	<b>6.7</b>	<b>5.6</b>	<b>5.3</b>
(광업)	0.7	8.7	1.5	2.0	3.6	4.4
(제조업)	8.7	3.4	4.8	7.5	6.0	5.5
(전기가스수도)	11.6	3.3	4.9	5.8	4.3	4.8
<b>서비스업 생산</b>	<b>10.9</b>	<b>1.3</b>	<b>6.8</b>	<b>3.5</b>	<b>4.8</b>	<b>4.7</b>
<b>투 자</b> <sup>1)</sup>	<b>12.6</b>	<b>6.1</b>	<b>3.8</b>	<b>4.2</b>	<b>4.0</b>	<b>3.9</b>
(SOC)	7.8	7.1	7.2	6.0	5.7	5.4
(제조업)	19.2	10.4	6.0	9.7	9.6	9.5
(부동산개발)	15.0	-5.4	-7.9	-9.8	-10.1	-10.1
<b>소매판매</b>	<b>12.1</b>	<b>3.1</b>	<b>3.1</b>	<b>2.3</b>	<b>3.7</b>	<b>2.0</b>

주 : 1) 누계 기준  
자료 : 국가통계국

## 2

## 현지평가 및 전망

□ 중국경제는 연초 개선된 경기흐름을 나타냈으나, 2/4분기 들어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

- 지출부문별 성장기여율을 살펴보면, 투자와 수출이 이번 분기의 성장을 견인한 반면, 소비(민간·정부)는 가계의 소득 증가세 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 등을 반영하여 기여율이 하락(兴业证券)

\*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3.3/4) 5.9% → (4/4) 6.4% → (24.1/4) 6.2% → (2/4) 4.5%

GDP 기여율(% , %p) <sup>1)</sup>	2023				2024	
	1/4	2/4	3/4	4/4	1/4	2/4(누적) <sup>2)</sup>
실질 GDP	4.5	6.3	4.9	5.2	5.3	5.0
최종소비지출	67.2 [3.0]	85.3 [5.4]	94.4 [4.6]	80.0 [4.2]	73.7 [3.9]	60.5 [3.0]
총자본형성	39.0 [1.8]	31.3 [2.0]	25.4 [1.2]	23.1 [1.2]	11.8 [0.6]	25.6 [1.3]
순수출(=수출-수입)	-6.2 [-0.3]	-16.6 [-1.1]	-19.8 [-1.0]	-3.1 [-0.2]	14.5 [0.8]	13.9 [0.7]

주 : 1) [ ]내는 GDP 기여도 (2) 당분기 수치는 GDP 발표 이후 시차를 두고 공개

- 한편 GDP디플레이터가 전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 되었으나,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저물가 지속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둔화, 정부의 재정여력 축소 등의 우려가 제기(广发宏观)

\* GDP디플레이터 증가율(누계, 전년동기대비): (24.1/4) -1.1% → (2/4) -0.9%

□ 중국정부는 하반기 경기회복세 강화를 위해 소비, 투자 등 내수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으나, 내수회복 기반이 견고하지 못하고 대외 견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빠른 경기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부동산시장의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주택수급 불균형 축소와 경제심리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경기회복 양상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

\* '고용-소득-소비' 순환이 정체되고 부동산·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가계자산이 축소됨에 따라, 가계의 소비능력 향상과 심리 개선은 더디게 진행될 전망(财信国际经济研究院)

- 수출의 경우 IT 품목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EU 등의 고율 관세 등 대외 견제 심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申万证券 등)